‘신중국식’ 려행 명절 소비 진작

이번 단오 련휴 기간 전통 풍습과 관광상품이 어우러진 ‘신중식’ 려행이 호황을 누린 가운데 민속문화관광은 대중의 려행 체험을 풍부하게 하고 휴일관광소비의 지속적 발전을 크게 견인했다.

섬서성 서안시의 장안 12시 주제거리는 단오 련휴를 맞아 당나라 때 분장을 한 관광객들로 인기가 컸다. 단오 련휴 기간 거리의 메이크샵도 호황을 누렸다. 직원 조자현은 단오절에 메이크업을 하러 오는 관광객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다. 가족을 단위로 한 관광객이 부쩍 늘면서 매장마다 60개가 넘는 화장대를 설치했지만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손님들로 붐볐다. 련휴 기간 매장에서는 손님들에게 단오절 분위기에 맞는 ‘록색’ 계렬의 패션과 메이크업을 적극 추천했다.

올 단오절 관광객들은 절강 동향오진 서책관광지의 석판 옛 거리를 찾아 즐거운 련휴 시간을 보냈다. 창포를 내건 가게와 오진 특색의 ‘선두쭝즈’로 골목마다 짙은 명절분위기를 연출했다. 쭝즈를 만들고 웅황을 주문하며 향낭을 만드는 등 단오절 민속행사는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다.

료녕 관광객 왕균연은 쭝즈를 처음 만들어본다며 이 과정에 정을 나눌 수 있어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길림 관광객 신춘영은 단오절에 ‘오황연’을 먹게 되여 너무 기뻤다고 말했다.

오진은 몰입형, 련동형 문화관광 신모델과 신장면을 적극 개발해 새로운 놀이법과 함의로 명절분위기를 살렸다. 오진관광부문 관계자 주건홍은 명절 기간 전통을 되찾고 ‘오황연’, 룡주 등불선을 선보이고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유원회를 조직하는 등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민속 체험 활동을 제공했다고 소개했다.

룡주경기, 룡주에서의 식사 체험, 특색 쭝즈 맛보기 등 단오 민속 체험행사는 주변 도시 관광객들의 ‘단거리 려행’을 성공적으로 도출했으며 네티즌들은 이를 ‘신중국식’ 려행이라고 불렀다. 현재 젊은이들 속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신중국식’ 려행은 90년생, 00년생들이 선호하는 새로운 려행 방식이다. 중국관광연구원 한원군 부연구원은 ‘신중국식’ 려행은 전통문화에 대한 젊은이들의 사랑과 존중을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관광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밝혔다.

플래트홈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련휴 기간 문화관광 예약 건수가 전년대비 70% 가까이 증가해 문화관광소비를 크게 진작시켰다. 중국사회과학원 관광연구센터 특약연구원 오약산은 치렬한 경쟁 속에서 문화유산이 관광 콘텐츠 공급의 주력군이 됐다고 밝혔다. 전형적인 유산자원 대국인 우리 나라에서 ‘신중국식’ 려행 열기는 현단계 관광 발전이 문화유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 중앙인민방송

안도현, 무형문화유산과 관광 유기적으로 결합

일전 2024년 ‘문화와 자연 유산의 날’ 연변 집중전시 및 피서관광 시즌 가동식 안도현 분회장에는 전통공예 작품 전시, 전통음식 전시판매, 민속문화 체험, 무형문화유산 사진 전시 등 두터운 문화저력과 전통민속 매력을 겸비한 본토 특색 무형문화유산 종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였다.

안도현 수씨철제품 제작기예, 조선족탈 제작기예, 피나무꿀 전통양조기예 등 전통기예류, 전통미술류 무형문화유산 작품을 감상하고 막걸리, 떡, 김치, 순대 등 전통음식을 맛보며 장백산 탕씨 전지, 강씨 모융화(毛绒画) 등 무형문화유산을 체험하고 윷놀이, 투호, 물동이 이고 걷기 등 민속유희를 즐기며 시민들은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이렇게 많은 무형문화유산을 동시에 본 적이 없다. 방금 우리는 음식을 맛보고 민속과 무형문화유산의 매력을 체험했다. 전승자들의 솜씨는 정말 놀랍다!” 몰입식, 다차원적인 현장 체험은 시민 조선생을 감탄케 했다.

2023년 2월, 문화및관광부는 〈무형문화유산과 관광의 심층적인 융합발전을 추동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 발부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전제로 무형문화유산과 관광이 더 넓은 범위, 더 심층적으로, 더 높은 수준에서 융합되도록 추동함으로써 관광으로 하여금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고양하고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끊임없이 확고히 수립하며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인민의 고품질 생활에 봉사하는 중요한 담체가 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도현은 ‘무형문화유산+관광’이라는 문장을 잘 엮기 위해 대장백산 관광경제권에 능동적으로 녹아들어 문화영향력, 관광흡인력, 산업경쟁력을 부단히 제고시키고 민족문화와 자연생태 우세를 경제 우세로 확실하게 전환시켰다. 관광산업 발전의 질적 향상, 효과 증대에 조력하는 동시에 자원 우세를 깊이 발굴하고 문화관광의 융합 발전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길풍길운으로 길상 선물(吉风吉运送吉祥)’, ‘무형문화유산의 관광지 진입’ 등 브랜드 활동을 선도로 무형문화유산의 체계적 보호, 심층적 발굴, 광범위한 전파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실시해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지금까지 안도현은 각급 무형문화유산 종목 62개를 성공적으로 비준받았는데 그중 국가급 1개, 성급 9개, 주급 12개가 포함된다. 또 성급 무형문화유산 전승기지와 전습소 5개, 주급 무형문화유산 전승기지와 전시점 9개, 주급 무형문화유산 체험기지 3개를 건설했다.

안도현에서는 무형문화유산과 관광의 ‘만남’으로 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백산력사문화원, 석문진민속풍정원 등 A급 관광지를 담체로 모란축제, 된장문화관광축제 등 일련의 특색활동을 조직해 관광객과 여러 민족 대중들이 몰입식, 교류식 관광 체험에서 중화전통문화의 매력을 느끼게 하고 문화가 더욱 왕성한 생명력을 얻을 수 있게 공들이고 있다. / 연변일보

장백산 운정프리마켓 정식 개장

▲ 려행객들이 운정프리마켓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13일, 길림성 장백산의 운정프리마켓(云顶市集)이 정식 개장했다. 장백산관광지에 위치한 운정프리마켓은 먹거리, 문화크리에이티브, 엔터테인먼트,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는 몰입형 문화관광거리로 부상했다. / 신화사

▲ 장백산 운정프리마켓을 찾은 어린이

연변, 자원 우세 발굴해 문화관광 브랜드 빛내

관광산업이 새로운 열풍을 맞이했다. 어떻게 하면 문화관광의 ‘트래픽’을 발전의 ‘증량’으로, 단기적인 ‘왕훙’ 현상을 진흥, 발전을 촉진하는 지속적인 ‘엔진’으로 전환할 수 있을가?

14일, 길림성관광발전대회에서 길림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연변조선족자치주당위 서기인 호가복은 연변 특색이 있는 관광 발전의 길을 개척하는데 노력해 연변을 사람들이 동경하고 오래동안 사랑받는 전국 유명 관광목적지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몇년간 연변은 관광산업의 강력한 회복과 소비 업그레이드의 기회를 다잡아 연길 중국조선족민속원, 연대 왕훙벽, 훈춘 와스토크몽환섬, 안도 상고대표류, 화룡 로리커호 등 왕훙명소를 정성껏 건설해 연변 관광이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게 했다.

2023년 연변은 연 2,646만 4,000명에 달하는 국내 관광객을 접대하고 434.7억원에 달하는 관광수입을 실현해 각각 동기 대비 314%, 409% 성장한 기염을 토해냈다. 연변은 중국 ‘10대 필수 방문 매력 도시’ 순위에 올랐고 올해 5월에 다시 한번 올해의 ‘아름다운 환신 도시’로 평가받았다.

“총체적 계획과 프로젝트 추진에 중점을 두고 업태 혁신과 공급 최적화에 초점을 맞추며 홍보 소개와 활동 기획을 정교하게 하는 것”, 호가복은 연변은 이런 ‘세가지 방법’으로 연변의 관광지, 경관, 풍경을 활짝 꽃피우고 새로운 업태, 장면, 놀거리를 형성하며 연변 관광의 영향력, 전파력, 감화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변은 생태, 민속, 변경, 빙상 스포츠 등 자원의 우세를 충분히 발굴하고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특색을 두드러지게 하고 차별화적으로 발전시켜 ‘1개 핵심 집결, 2개 관광벨트 견인, 4개 관광구 협동’ 전역관광 발전의 새로운 구도를 만들었다.

관광의 새로운 업태, 장면, 놀거리를 기획함에 있어 최근 몇년간 연변은 문화관광소비 열점과 관광구매력을 총괄해 ‘음식, 숙박, 출행, 관광, 쇼핑, 오락’의 전체 산업사슬을 관통시키는 것을 둘러싸고 수요로 공급을 견인하고 공급으로 수요를 창출하며 ‘관광+’, ‘+관광’ 사업을 깊이있게 추진해 관광객의 개성화, 특색화, 다양화 수요를 만족시키는 데 주력하고 문화관광의 신질생산력을 육성시켜왔다.

연변은 ‘맛집 탐방’의 새로운 업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불고기, 랭면, 김치 등 특색 음식산업을 발전시키고 ‘현역 커피의 왕’ 브랜드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먹을거리가 풍부한 도시’를 건설하고 있다. 또 ‘문화오락 아트토이’ 신업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특색이 있는 의류 임대점, 체험관, 사진스튜디오를 건설하고 창의적인 화장, 패션 조형 등 개성화 써비스 공급을 풍부하게 해 전국 유명 려행촬영기지를 건설하고 있다. ‘레저운동’의 새로운 업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로인, 중년, 청소년, 국제, 국내를 아우르는 정품 축구대회를 기획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연변에서 축구의 매력, 도시의 활력을 느끼도록 유도하고 있다. ‘견학관광’의 새로운 업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왕청애국주의교양기지, 화룡 광동촌, 연길 태흥촌 등 홍색교양자원을 깊이 발굴해 ‘산마다 진달래, 촌마다 렬사비’ 홍색견학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정품화하고 있다. ‘야간경제’의 새로운 업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연대 왕훙벽, 훈춘 유럽거리 등 야간경제 집결구의 경영 형태를 풍부하게 하고 야간 쇼핑, 야간 음식과 야간 문화오락, 야간 체육 등 업태와의 심층 융합을 추동해 도시의 소비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연변은 ‘천만 관광객 유치 계획’을 깊이있게 실시하고 동북지역, 경진기,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등 중점 관광객 객원지와의 련계, 협력을 강화하며 학습반, 전시회, 훈련양성, 경기대회를 연변으로 유치하는 사업을 심화할 계획이다. 또 ‘가무의 고향’, ‘축구의 고향’, ‘려행촬영기지’ 홍보를 강화하고 24시간, 사계절, 년간 민속려행, 향촌려행, 견학려행, 변경려행 등 정품로선을 깊이있게 개발해 ‘달마다 축제가 있고 사계절 행사가 있는’ 문화관광 행사 브랜드를 구축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항로보조금, 세수우대, 금융신용대출 등 지원 강도를 높이고 상시적으로 숙박 혜택, 풍성한 먹거리, 신나는 놀이, 즐거운 쇼핑 등 소비쿠폰을 방출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연변의 풍경을 관광하고 민속을 체험할 수 있게 흡인할 계획이다. / 신화사

연변, 일부 풍경구 할인 혜택 마련

2024년 대학입시가 끝나고 고중입시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졸업 시즌을 맞는 학생들에게 뜻깊은 졸업 려행을 제공하기 위해 연변의 일부 풍경구들에서 대학입시와 고중입시 수험생들을 상대로 잇달아 할인 혜택 조치를 내놓았다. 일부 풍경구는 대학생들을 위한 혜택도 마련했다.

료해한 데 따르면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본기 고중입시, 대학입시 수험생들은 돈화시 륙정산문화관광구에서 입장권 무료 혜택(승차권 제외)을 향수받을 수 있다. 또한 지금부터 9월 1일까지 전국 고중입시, 대학입시 수험생들은 륙정산 온천 입장권을 49원에 구매할 수 있다.

중국조선족민속원, 연길공룡박물관은 학생입장권 반값 우대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연길공룡왕국은 고중입시, 대학입시 학생 우대 조치를 실시하는데 6월 10일—8월 31일 테마파크 인당 158원(원가 238원), 수상락원 인당 99원(원가 138원), 연길력사문화박물관 인당 20원(원가 40원)이며 6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훈춘 방천풍경구는 대학입시 수험생들을 상대로 입장료 무료 조치를 실시한다.

6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룡정 비암산풍경구에서는 고중입시, 대학입시 학생의 198원에 해당되는 9종 세트 티켓을 1장 사면 1장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하는데 여기에는 하늘거울, 보보경심, 유리현수교, 사격장, 고공표류, 큰 문어, 칠색 스피드 스케이팅, 숲속렬차 등이 포함된다.

할인권은 판매되면 환불하지 못한다. 비암산 온천 입장권도 168원에 1장을 사면 1장을 증정하는데 여기에는 실내외 온천, 실외 수영장, 찜질방, 휴식구, 실외 수상락원 등이 포함된다.

6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학입시 수험생들은 룡정 량전백세스포츠리조트 지혜농장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사격관 실탄사격 체험은 40% 할인(원가: 한발당 25원, 할인: 한발당 15원, 5발부터 판매)한다. 리조트에서 100원 이상 소비하면 바비큐 텐트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300원 이상 소비하면 텐트호텔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500원 이상 소비하면 VIP 텐트호텔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6월 12일부터 7월 30일까지 안도 화평화산유적지는 대학입시 수험생들을 상대로 무료입장권 혜택(교통비 본인 부담)을 실시한다. 고중졸업생들은 전 지형 자률주행 고산삼림횡단, 새로운 ATV 자률주행 중급 6키로메터—20키로메터 로정, 산악자전거 타기, 낚시, 산꼭대기 도보 관광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다만 식사는 사전에 예약해야 한다.

한편, 6월 7일부터 길림성은 학교를 단위로 대학생들에게 20만장 이상의 관광지 무료입장권을 지급했다. 여기에는 연변의 돈화 륙정산문화관광구, 중국조선족민속원, 훈춘 방천풍경구 룡호각 등 관광지가 포함되며 각기 1만장씩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 본지종합